2016년 새로운 조직개편, 힘찬 출발 다짐!

12개 지부 중 5지부 지부장 선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2개 지부가 지부장 이하 이사진을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면서 2016년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신임 지부장을 선출한 지부는 인천광역시지부(지부장 김용구), 경기도지부(지부장 김이항). 강원도지부(지부장 김기수), 전라북도지부(지부장 서용훈), 경상북도지부(지부장 권태옥)가 각각 2016년 새롭게 닻을 달았다. 이에 현재(4월 10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된 5개 지부에 대해 2016년의 마약퇴치 활동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인천광역시지부 김용구 지부장

"모든 직능군 힘을 합쳐 마약퇴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부의 체계적인 발전과 중독자들의 치료회복 및 사회전반의 예방교육에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인천은 지역 특성상 항공과 해운이 연결된 곳으로서 밀수 등에 크게 노출된 마약퇴치 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인천지역은 약사뿐 아니라 여러 직능군이 모여 마약퇴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검사장 출신 변호사 · 의사 · 교수 · 약사회장 · 사회단체장 ·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을 구성해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가천의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님이 정책자문으로 합류한 상태입니다.

기존 1000회 가까운 학급별 예방교육과 20회의 연극 예방 교육을 했으며 특히 올해는 예방교육에 좀 더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근 건강관리협회에서 군인, 경찰 등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에 교육을 합류하여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유치원 대상으로 20회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약 바르기' 교육도 45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청장, 민방위 등 특정인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인천교육감과 직접면담 후 인천지부와 함께 활동할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지부는 앞으로 모든 직능군이 힘을 합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깃발아래 열심히 마약퇴치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합니다.

경기도지부 김이항 지부장

"헌신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부가 설립된 2004년 총무이사로 실무를 맡게 되면서 인연을 맺어 2016년 지부장이 되기까지 감회가 남다릅니다. 약사회장 출신이 아닌 실무자가 제5대 지부장이 된 만큼 회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회원들에게는 소속감을 높여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높은 위치의 지부장이 아닌 실무자의 대표로서 처음의 마음으로 회원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경기도지부는 유아 · 지역아동센터, 초 · 중 · 고등학생 등 연간 11만 명,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마그미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경기도지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기도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사업, 학생 참여 건강체험 프로그램, 인형극 등 다양한 마약퇴치 홍보사업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5년간 이룩해 놓은 전임집행부의 많은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서 '마약 없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더 헌신하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원들을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지부 김기수 지부장

"약사회와 화합하며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지부의 활동성을 부각하여 약사회 회원들의 예방교육 강사 참여율을 높이고 마약퇴치 활동에 매진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강원도지부는 약사회장과 겸직하지 않고 있고, 약사회와 지부가 따로 운영되다 보니 회원들의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참여율이 떨어져 운영함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지부의 형식, 재정 등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틀과 기반을 갖추는데 가장 크게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약사회와 융합하고 함께 상생하여 힘을 합쳐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마약퇴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마약퇴치'라고 하면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물오남용, 금연 등 약사 직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성교육, 약물과 뇌, 중독적 사고 및 공동의존, 갈망대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강화, 사회기술훈련 등의 교육을 진행할 진행하며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단약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지부 서용훈 지부장

"마약류 실태 알리고 회원들과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스며들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지부는 마약의 정확한 정보와 실태를 알릴 필요성을 느끼고 전주와 군산 교도소를 찾아 향정사범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재활교육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전북약사회 회장과 겸임하고 있으며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전주시분회 총무이사 6년, 전주시분회장 및 부지부장 6년의 회무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문제를 타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마약의 위험성의 노출이 적은 곳입니다. 우리 지부는 청정 전북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형극, 초등학교 보건 교사 교육과정 등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지부는 마약의 정확한 정보와 실태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회원들과 호흡을 맞추어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경상북도지부 권태옥 지부장

"예방교육 강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약바로쓰기운동과 함께 약물 오남용을 억제하여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지부는 경북약사회, 경주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상담실을 운영하며 마약 · 약물 중독 폐해를 알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물을 배포하고 가두행진을 하는 등 불법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라톤, 체육대회 등 행사에도 마약퇴치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예방 교육 강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그미 강사 양성이야 말로 마약퇴치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학교, 경로당, 노인대학 등 약물오남용 및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타 단체, 지역 내 보건소, 병원약사회 등 여러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성립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본부에서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지부에 전달하여 마약퇴치 활동을 진행한다면 마약 없는 사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